

내신 성적 '리셋'...자퇴 후 재입학하는 고교생들

수시 지원 내신성적 절대적 영향
지난해 광주 24명 학업문제 자퇴
한 학교서 1학년 10여명 자퇴도
전남서도 2021년 25명 편·입학
정시 대비 검정고시 위한 자퇴까지
대학입시 제도 보완·손질해야

#. 광주 A고교에서는 지난해 수 명이 자퇴했다. 대부분이 1학년이었던 이들은 내신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자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다. 올해 신학기에 다시 재입학해 내신 성적은 완전히 '리셋'하겠다는 입시전략(?)인 셈이다.

#. 광주 B고교에서는 작년에 1학년생 10여명이 자퇴했다. 이들은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1학년 내신 성적이 자신이 원하는 '인서울' 수준이나 의대 등 특정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에 미치지 못하자 학교를 그만둔 것이다. 보통 이 학교에서 한 해 5~6명이 학업,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자퇴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숫자가 증가했다.

'자퇴 후 재입학'의 증가는 수시 지원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내신 성적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탓에 만족하지 못한 성적이 나온 학생들이 선택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또 '자퇴 후 검정고시'는 대학 입학 정시 선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로 1~2학년 성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심지어 1학년 성적만 맘에 들지 않아도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검정고시생의 증가는 고등학교 생활 없이 수능만 잘 보면 대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8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비중은 26% 수준이었으나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16개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37.9%로 급증했다. 2023학년도엔 40.5%까지 늘어났다.

이와 함께 일부 학교의 사례지만 수도권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입학한 학생도 있다. 진학 예정된 수도권 고교에서는 원하는 내신등급을 받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경쟁에 유리한 광주지역 고교를 택



광주~나주 효천2 지하차도 개통
광주와 나주를 연결하는 관문인 광주시 남구 행암교차로 '광주 효천2 지하차도'가 18일 오후 임시개통했다. 행암교차로의 하루 평균 차량 이동량은 6만7000여대에 달하지만, 2017년 이후 5년 넘게 공사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를 유발했다. 이번 지하차도 개통으로 오는 설 명절 해당 지역의 교통 정체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

한 것이다. 역으로 광주에서 원하는 내신성적을 받지 못해 전남지역 고교로 전학하는 학생들도 있는 실정이다.

광주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광주 53개 일반계 고교의 자퇴생 70명 가운데 24명이 학업문제로 자퇴했으며 이 가운데 17명이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다. 교육계에서는 1학년 자퇴생의 경우 내신 성적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고교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 25명은 중학교 졸업 후 1년 뒤에 입학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내신성적 때문에 재입학을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에서도 고교 자퇴생 수가 지난 2020년 581명에서 2021년 723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들 중 25명이 다시 학교로 편·재입학했다. 학업기피·학습미진 사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도 102

명에서 112명으로 늘었다.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학습환경 변화와 대입전형의 변화로 내신 확보 등 학업 사유로 자퇴(학업중단)했거나 재입학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고교 교사와 입시학원 등에 따르면 고교 자퇴 후 재입학한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재입학을 택하고 있다. 학생들이 1학년 때 만족스러운 내신을 받지 못했어도 자퇴하고, 재입학하면 새롭게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학교 때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학생들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선택에는 내신 성적으로 신입생을 뽑는 수시전형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 주요 21개 대학들이 수시로 2023학년도 신입생을 뽑는 비율은 평균 60%에 달한다.

A 고교 교사는 "의대 등 선호하는 대학으로 진학하려면 내신성적이 좋아야 하는데, 1학년 성적이 좋지 않아 교육적으로 자퇴하는 학생이 생긴다"면서 "성적 때문에 자퇴하는 학생이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퇴를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대학 입시제도를 보완하거나 손질해야 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B 고교 교장은 "대학들이 수시에서 대부분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생들이 내신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대학선택의 폭이 협소해지고 만회할 기회가 없는 부작용을 완화하도록 제도적으로 수시와 정시선발 비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재명 대표, 28일 단독으로 검찰에 출석

대장동 특혜 의혹 조사...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 보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28일 검찰 출석에서 민주당 지

도부나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동행 없이 단독으로 나가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인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망원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

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재명 대표 측에 설 명절 뒤인 27일 또는 30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재명 대표는 "많은 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중엔 일을 해야 하니 제가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며 "우리 당의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애정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시지만 그 시간에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길 바란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

정부, 화물연대 파업 빌미 명칭 바꿔
표준운임제로... 화주 처벌조항 없어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종료되자, 지난 달 20일부터 화주·운송사·화물차주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했다.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날 발표가 사실상 정부안이다.

정부는 먼저 안전운임제 명칭을 폐기하고 표준운임제로 바꾼다.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에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해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표준운임제와 안전운임제의 가장 큰 차이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앴다는 점이다.

우리 물류 시장에서 화물 운송은 '화주-운송사-화물차주'를 거쳐 이뤄진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 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차주 간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운송사 간 운임을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표한다.

이에 따라 화주는 정부가 정한 운임에 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표준운임제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적용한다. 3년 일몰제로 2025년 12월까지 운영해보고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운송사 본연의 역할인 운송 일감을 제공하지는 않으면서 위·수탁료만 받는 위수탁전문회사, 즉 지입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밖에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주 복지 증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어디든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업 시동 ▶2면
- 지역주택조합 역대 추가 분담금 조합원 반발 ▶6면
- 광주FC 이정호 감독 2024년까지 동행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ercedes-Benz Certified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온라인샵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국내 수입처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 광역시 서구 상당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